

방역 문제 취약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한진석 기자 1_jinseok@knu.ac.kr
강나윤 기자 nadori814@kn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학내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서울캠 총학이 11월 25일 게시한 카드 뉴스에는 우리 학교 휴게공간에 대한 지적과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담겨있다. 해당 카드 뉴스에서 지적된 사항은 ▲협소한 공간 ▲소음 ▲악취 ▲환기 불가 ▲냉난방 시설 부족 ▲업무와 무관한 기계 배치 ▲적정 수용 인원 초과 등으로,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준다. 이 사항은 2019년 우리신문에서 취재했을 당시 지적한 부분과 일치한다. 당초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 1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총무처와 노동조합원 간의 간담회에서는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문제가 언급됐다. 장세윤 총무팀장은 “업무 분야에 상관없이 노동 환경의 개선은 모든 재직자가 바라는 것이고,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휴게공간 보장 요구에 공감하지만, 공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시급한 문제는 공간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르면 휴게실과 같은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1일 3

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조차 불가한 곳이 있으며 많게는 9~12명까지의 인원이 함께 이용한다. 종학생회에서 진행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휴게공간의 58.2%가 환기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기청정기 설치, 석면 제거 등 구조적 문제와 상관없이 논의될 수 있는 문제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휴게공간 환기와 적정 수용 인원 문제는 구성원 전체의 방역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통합노조 지도위원 백영난 씨는 “다수의 인원이 함께하는 곳인데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여지없이 건물 전체가 폐쇄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감염은 근무 시스템과 직결되어 일하는 것에 지장을 주므로 인원이 많은 곳은 분리하고 환기 시설 구비에 힘써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 씨는 공간적인 어려움에 대해 “학교 측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휴게공간을 다른 곳으로 옮길다면 학생들의 공간을 노동자가 침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면서도 “구성원들이 배려해주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환기가 되는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들이 있을 것 같다”며 구성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실제로 문과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이용하던 공간을 전환해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조성이 이루어진 바 있다.



1. 휴게공간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2. 협소한 공간을 많은 인원이 이용해 방역 우려가 제기된다.
3. 창문, 공기청정기 등이 없어 환기가 되지 않는 휴게공간

(사진=한진석 기자)

현재 종학생회 카드 뉴스 게시물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지하는 댓글을 남기며 현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다. 서울캠 남우석(철학 2018) 종학생회장은 “휴게공간 현장의 실태조사 결과 별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휴

게공간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많은 학생과 구성원이 청소노동자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문제로, 현실적인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총학은 노조와 함께 휴게공간 개선 요구안을 작성해 학교 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로운 쓰레기 배출 방식, 건물별 분리수거 실시

강린희 기자 linhee0710@knu.ac.kr

지난달 22일부터 쓰레기 배출 방식과 쓰레기통 배치 장소가 대폭 변경됐다.

우리신문은 미흡한 분리수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버릴 곳 없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부족 개선 방안 수립 시급/대학주보 제1675호 (2021.09.13.)) 이전까지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 분류 없이 파

란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일괄적으로 버려졌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잔반이 늘어나며 이와 같은 배출 방식이 더욱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총무팀은 각 건물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새롭게 정해진 쓰레기 배출 방법은 전체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재활용1, 재활용2, 음

식물 쓰레기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재활용1은 종이류 쓰레기, 재활용2는 유리병, 캔류, 페트병, 플라스틱류이다.

종이류 쓰레기들은 스프링이나 박스 테이프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수거용 박스에 모아 분리배출한다. 이때 수거용 박스는 따로 제공되지 않으며,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리병, 캔류, 페트병, 플라스틱

은 신규로 설치된 회색 재활용 쓰레기통을 사용하며, 이는 각 건물에 총당 1개 또는 2개로 자율 배치된다. 캔이나 유리병 내부의 이물질, 페트병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료를 제외한 음식의 잔반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55L 사이즈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비닐 봉투에 담

고 밀봉해 버려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한 일반 쓰레기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파란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계속 사용한다.

현재 대학본부와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38개의 건물에 재활용 쓰레기통 253개와 음식물 쓰레기통 42개가 추가적으로 설치됐다. 다만, 새로운 분리수거 체계는 청소 노동자들과 학교 측 논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